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6. 10.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윤 동 빈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	팀 장 담 당 자	한 상 균 이웅채/김병도		044-202-3232 044-202-3238/3239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과 장 담 당 자	진 선 주 채 영 주		044-205-3341 044-205-3342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이 성 희 홍 수 영		044-203-6506 044-203-649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정 향 미 장 동 엽		044-203-2811 044-203-2809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과 장 담 당 자	양 기 철 김 영 일		02-2110-1567 02-2110-15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공공과 민간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은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며, 늦어지는 경우 정부 신뢰에 큰 저해로 작용하는 만큼 현황을 점검하여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 1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시범사업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였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하여, 1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범사업에 이어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중

○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 및 설치 가능

□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설 종류	
의무 적용 시설*	1. 고위험시설 8종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2.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설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	
	※ 도입 권고 : 통신곤란 시설 및 독자적 시스템을 활용 중인 시설 및 지자체	
임의 적용 시설	▪ 자율적 판단에 따라 앱 설치·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 ※ 학원 등도 자발적 참여 권고	
적용 기간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 의무적용시설 적용 계도기간 : 6월 10일 ~ 6월 30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 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보완할 예정이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 1, 2차 합동 교육 실시 완료 : 1차 6.8.(월), 2차 6.9.(화)

-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2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 총 29만 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하였다.
-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도 및 교육청에 총선 및 5급 공채 시험을 무리 없이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이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3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연기하고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특별 여행주간은 당초 6.20(토)~7.19(일)까지 30일간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7.1(수)~7.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특별여행주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여행주간 전이라도 여행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안전여행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4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토록 하였으며,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 나아가 공개한 동선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 등에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5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 마련·배포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운영인력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운영수칙은 하절기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의료진 및 운영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 운영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유형별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다.

\* (개인보호구) 전신기운을 포함한 4종(수술용 기운, 페이스섶드, N95 마스크, 장갑) 사용 권장

\*\* (개선사항) ①사전예약제 운영, ②수분섭취와 체온 유지를 위한 식수 및 냉방기 비치, ③야외 설치시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 ④오후 시간대는 운영 축소 등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614개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예산 약 30억 원, 기존 예비비 활용)

※ 냉·난방기 설치비용 지원 관련 세부절차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안내 예정 (문의처 : 02-705-9213, 9216)

## 6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원·독서실 1,127개소 △공중화장실 19,648개소 등 41개 분야 총 41,090개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288건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 부산에서는 개척교회, 탁구클럽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였고, 강원도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7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4개반, 811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77개소(49.8%)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499개소 중에서 출입자 대장 작성 미흡, 발열체크 미흡한 사례 등 18건이 발견(전북)되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6월 9일(화) 오후 6시 기준, 2,98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5,280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9,616명\*이다.
  - \* 국내 발생 7,734명, 해외 입국 31,882명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6% 설치되었다.



- 어제(6.9)는 인근 공원산책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고발 조치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3명이며, 이 중 9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4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3개소(2,53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69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9일) 입소 138명, 퇴소 146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8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 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 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